9-21-2025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24:29-36
말씀제목: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과,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는 지혜**

아버지만 아시는 휴거의 날을 1992 년 10 월 28 일로 정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일로 인하여 이제는 대부분 한국 기독교계가 휴거 자체를 믿지않게 되는 속임수에 빠져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도 그들이 날짜를 정한 것이 나팔절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25 년 나팔절에 오실 것을 믿고 그 날을 9 월 23-24 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날을 아버지만 아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를 통하여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한 후 신랑은 결혼식까지 살 집을 준비합니다. 신랑이 준비가 끝나게 되는 때쯤 어느날 아버지가 아들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할 때 신랑 아들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들의 말이나 임사체험을 통하여 들었다는 말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자신 뿐만 아니라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으라고 하다가 정작 그날이 오지 않고 지나게 될 때 사탄은 이 일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의 대상이 되게하며 심지어는 휴거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자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아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버지지 아니하리라."(마 24:32-35)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하시며 또 그들애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이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눅 21:25-33)

예수께서는 어느 특정한 날과 시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와 시기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그 역시 어느 특정한 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날 일을 보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1-9)

또한 사도 바울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살후 2:1-4)

우리는 임박한 휴거의 날을 앞두고 지혜롭게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단 한 사람이라도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날이 오는 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믿음을 주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992 년 10 월 28 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온 나라 사람들에게 부르짖었지만 그 날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휴거에 대해 조롱하고 성경에 휴거의 말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여 온 기독교계를 파탄에 이를 정도로 시험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살전 5:23-24)

아멘! 할렐루야!